

아키그램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개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Individual' found in works of Archigram Group

Author 권제중 Kwon, Je-Joong / 정회원, 프랑스 국립 파리 1 대학 박사, 프랑스 건축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individual' found in architecture of British Archigram Group. Although many critics and historians have judged Archigram as a simple technocrat, the concept of individual employed by Archigram since their Living City Exhibition undermine their representational works. Archigram's concept of individual was basically influenced by the European historical context since the Renaissance and at the same time by the philosophy of existentialism. Since Archigram proposed their individualistic trend in the Living City Exhibition, they have created many individualistic architecture such as Living Pod, Cushicle, Suitaloon, etc. Through these experimental projects, Archigram's concept of individual did not intend to get rid of the society itself, but to form a society based on the individual autonomy and on the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In the city of Archigram, there was ultimately the new symbiosis between individual units and this symbiosis completed new world.

Keywords 아키그램, 개인, 개인주의, 실존주의, 리빙 시티 전시회
Archigram, Individual, Individualism, Existentialism, Living City Exhibition

1. 서론

1960년대 초, 영국 런던에서 6명의 젊은 건축가들에 의해 탄생해 1974년까지 활동한 아키그램(Archigram) 그룹¹⁾의 건축은 많은 역사가와 비평가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기계적 메타포에서 영감을 얻은 기술 지향주의 건축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아키그램의 작업은 사회적·정치적 인식이 결핍되었고, 기술의 우위를 위해 인간이 무시되었다고 오랫동안 비판받았다. 예를 들면, 스위스의 건축 역사가 지그프리트 기디온(Sigfried Giedion)은 아키그램의 건축에 대해 "인간이 살아 숨 쉴 수 없고, 인간 거주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완전하게 거부하는 기계처럼 보인다"고 비판하였다.²⁾

'인간' 혹은 '개인'의 고려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키그램의 많은 작품들, 그 중에서도 아키그램의 대표적 거대구조물(megastructure) 계획들은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모호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아키그램은 여러 제반 문제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은 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출판물과 만화 같고 공상 과학 소설 같은 이미지들만 가지고, 자신들의 특징을 만든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건축의 '인간성 보존'과 '개인에 대한 배려'라는 원칙이 배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공상적 도시에서 거주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들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이미지와 특징을 구축한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그들의 작품을 본 사람들은 그 도시 안에는 로봇이 사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이 기까지 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건축가 한스 홀라인(Hans Hollein)은 피터 쿡의 책 「아키그램」의 서문에서 이와 같은 일반적인 견해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한동안 아키그램의 작업은 기술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인간 개인을 무시하면서, 사회적·정치적 인식이 부족했던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러한 비판이 잘못됐다고 믿는다 ... 그들의 생각은 언제나 인간을 위해, 인간의 더

1) 피터 쿡(Peter Cook), 론 헤론(Ron Herron), 워렌 초크(Warren Chalk), 데이비드 그린(David Greene), 마이클 웹(Michael Webb), 데니스 크롬튼(Dennis Crompton)의 여섯 건축가로 구성된 60-70년대 영국의 아방가르드 건축가 그룹.

2) Stefano Casciani, Archigram has landed, Domus, n° 865, 2003. 12, p.63

나은 생활을 위한 것이었다.³⁾

아키그램 구성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건축이 비도덕적이고 의미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해 자신들이 '건축가의 건축'을 위해서 개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위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사용했음을 주장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아키그램의 대표적인 기술적 이미지에 가려서 주목받지 못했던 인간 개인에 대한 개념과 이에 기초해 만들어진 개인을 고려한 건축과 도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아키그램이 추구한 진정한 건축적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아키그램의 '개인' 개념의 배경

'사용자로서의 인간 개개인을 위한 건축'이라는 관점에서, 아키그램의 건축과 도시 개념은 두 가지 사상, 즉 개인주의와 실존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2.1. 개인주의(Individualism) 사상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높은 가치를 두는 정치·사회 사상으로, 대체로 자발적·독립적이며 비교적 구속받지 않는 개인 또는 자아를 강조한다.

개인주의는 하나의 철학으로서 가치체계, 인간본성론, 일반적인 태도나 기질, 그리고 특정한 정치·경제·사회·종교 제도에 대한 신념을 포함한다. 가치체계는 3 가지 명제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가치는 인간 중심적이다. 다시 말해 가치는 반드시 인간 자신이 만들어내지는 않았더라도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 사회란 개인적 목적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어떤 사람도 타인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제에서 가장 잘 표현되고 있듯이 모든 개인은 도덕적으로 평등하다.

개인주의적 인간본성론은 보통 성인의 경우, 목표를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와 책임, 목표를 이루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념은 자기의 이익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각 개인이고, 교육을 받은 개인은 어떻게 그 기회를 발전시킬지를 알 수 있다는 확신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행위가 개인의 발전과 사회복지에 이바지한다는 전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으로만

파악된다. 각 개인이 독립적이며 관념적으로 거의 자기 충족적인 실체임은 물론이다.⁴⁾

서양 사회에서 개인주의는 그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형성되었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즈먼(David Riesman)이 자신의 책 「외로운 군중(The Lonely Crowd)」⁵⁾에서 주장한 것처럼, 서양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등장한 것은 역사적으로 필연적이었다. 르네상스 이후의 서유럽인들은 당시에 서서히 등장하고 있던 중산층을 포함한 중상주의자(重商主義者)들의 노력에 의해 국가의 통제·간섭이 축소되는 상황과 인간의 자연본성(自然本性)인 이기심(利己心)의 자유와 개인이 자신의 의지로 행위를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상황을 통해 정치·경제적으로 점차 자유로워졌다. 또한, 중세적인 교회 중심적 체제에 반대하여 각 개인의 신앙의 내면화(內面化)를 주장하고, 가톨릭의 보편주의(普遍主義)에 대항해 개인주의적인 반역을 꾀한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에 의해 교회의 통제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점차 종교적으로도 자유로워졌다. 즉, 그들은 '자유시민(freeman)'이 된 것이다.

완벽한 형태를 갖춘 개인주의는 영국에서 처음 나타났다. 영국에서 발전한 개인주의 사상은 특히 애덤 스미스(Adam Smith),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의 사상이 발표되고, 경제·정치 이론 부문에서 그 추종자들의 작업이 진행되고 난 후 형성된 것이다. 개인의 의지가 자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깊은 신념에 바탕을 둔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 이론, 그리고 "각 개인을 똑같이 존중하고 어느 누구도 한 개인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 기본원칙과 함께 벤담의 공리주의(功利主義)는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개인주의 사상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에 대규모 사회조직이 나타나면서 빛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개인주의 원칙과 정반대되는 원칙에 따라 사회조직을 부각시키는 이론인 집단주의(Collectivism)가 새롭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되살아나면서 개인주의는 집단주의적 움직임이 빚어낸 비인간화경향을 저지하는 데 한몫을 하였다.

특히, 국제적인 불안감이 증가하던 분위기 속에서 산업화와 기계화가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1930년대 유럽에서는 사회의 위기와 몰락, 그리고 인간의 인간성 상실에 관한 폭넓은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유발됐던 정신적 가치의 붕괴로 인해 이 무렵에는 이미 건축적 가치가 붕괴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에 편승해 다양한 형태의 고통과 의심이

3) Hans Hollein, Introduction, in Peter Cook, Archigram, Studio Vista, London, 1972, p.11.

4)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111180>

5) David Riesman, Nathan Glazer, Reuel Denney, The Lonely Crowd : A Study of the Changing American Character,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50.

나타났다. 이러한 정신적 해체의 과정은 ‘자아의 내재화’란 과정을 포함하였으며, 인간의 내부 세계는 외부의 현실로부터 격리되었다. 이에 1930년대부터 사람들은 정신적 해체에 의해 유발된 자기 파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간 존재, 세계 그리고 건축을 재건하려고 시도했고, 1930년대의 이와 같은 정신적 태도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2.2. 실존주의(Existentialism) 사상

실존주의는 20세기 전반(前半)에 합리주의적 관념론이나 실증주의 사상에 대한 반동으로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하는 철학 사상이다. 제 1차 세계대전 후의 ‘생(生)의 철학’이나 현상학의 계보를 잇는 이 철학 사상은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문학이나 예술의 분야에까지 확대하여 세계적인 한 유행사조가 되었다.

‘생(生)’을 더욱 파고들면 대상화할 수 없는 독단적이고 절대적인 실존을 찾게 되고,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실존주의 사상이다. 장 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의 생각으로는, 인간에게는 실존이 본질에 선행(先行)하며, 따라서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은 완전히 자유로운 입장에서 스스로 인간의 존재 방식을 선택하게끔 운명 지어졌다. 만약 인간의 본질이 결정되어 있다면 개인은 다만 그 결정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지만, 본질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각적인 생활방식이 실로 중요하게 된다.⁶⁾ 하지만,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단순히 개인적 표현이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동시에 사회 구조와의 심오하고 진실한 관계까지도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사르트르는 생은 사회 구조로부터 생성된 무관심에 도전하는 강화된 의식의 상태 속에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 결국, 어떤 개별자, 어떤 개별자의 주체성, 내면, 의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주변의 다른 것들을 구성해 나가는 사유가 바로 실존주의 사상인 것이다.

합리주의, 기계문명, 세계전쟁의 반항내지 극복의 노력 속에 싹튼 실존주의는 인간소외와 상실되는 인간존엄에 대결하여 인간의 주체적인 독자성을 내면에서 나오는 자유결단으로부터 확보하려는 사상이었으며, 이러한 실존주의를 근대건축에 대응시켜 보면, 이미 국제주의 양식의 보편적, 획일적 조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유기적 건축의 사상적 근간이 되고 있었다.

실존주의는 두 차례 세계 대전을 겪으며 유럽 대륙에서는 이미 유행적인 사상이 되었는데, 특히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지식인 계층에서 폭넓게 전파되었다. 하지만, 토착적인 경험주의(經驗主義)가 지배적이었던 영국에서는 실존주의의 전파가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비록, 대륙에 비해서는 늦어졌지만, 1950년대 초에는 영국에서도 사르트르의 작품이 폭넓게 읽히고 논의되었다.

2.3. 건축 및 도시계획의 배경

근대건축의 영향력이 컸던 1950년대까지는 합리주의적 보편성에 기초한 표준화의 개념이 많은 건축물에서 극단적으로 실현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말, 이러한 근대운동에 대한 반발이 태동하기 시작하였고, 근대운동에 대한 치명적인 반론들은 196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졌고 많은 젊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아키그램 잡지가 처음 발행된 1961년에는 뉴욕의 저널리스트이자 사회 행동가였던 제인 제이콥(Jane Jacobs)의 저서 「위대한 미국 도시들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⁸⁾이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 제이콥은 르 꼬르뷔제의 도시계획에 대한 이상과 근대운동의 여러 디자이너들을 비판하면서 근대 도시계획의 확고했던 가정들을 동요시켰다. 제이콥은 또한 도시 계획가들이 도시의 문화변용(acculturation)을 파괴함으로써 도시를 공허한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제이콥은 도시의 질서와 생명력이 도시에 사는 개인들 사이의 느슨하고, 즉흥적인 집합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리에서 사람들을 몰아내는 도시계획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했으며, 보도를 비롯한 공적 공간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미국의 도시 전문가 윌리엄 화이트(William H. Whyte) 역시 1958년 출판된 자신의 책 「폭발하는 대도시(Exploding Metropolis)」를 통해 제이콥과 마찬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1956년에 저술한 책의 제목이기도 한 「조직인간(The Organization Man)」⁹⁾속에 개인을 포함시켜버린 독선적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으로 유명했던 화이트는 이 새로운 책을 통해 근대도시의 균질적 효과에 비난을 집중시켰다.

건축에 있어서 살아있는 경험과 일상생활의 의식과 패턴들, 그리고 근대건축과 근대 도시계획에서 무시되었던 도시에서의 개인들의 경험과, 이것에 기여한 인간관계의 네트워크 등을 제이콥과 화이트는 옹호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몇몇은 1960년대의 아방가르드 건축가들에 의해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제이콥과 화이트의 이론은 당시의 아방가르드적 건축

6) <http://100.naver.com/100.nhn?docid=102840>

7) Andrew Higgott, *Mediating Modernism*, Routledge, London, 2007, p.99.

8) Jane Jacobs,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Vintage, New York, 1961.

9) William H. Whyte, *The Organization Man*, Simon and Schuster, New York, 1956.

과 도시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신세대 도시 계획가들의 가정은 미래는 완전하게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되는 것이 아니었고, 도시가 설계 사무소에서 만들어진 도면에 의해 하향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거리에서 주민 개개인에 의해 상향식으로 창조된다는 것이었다.

3. 아키그램 건축의 '개인' 개념

CIAM(근대건축국제회의)이 해체되고 근대건축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가던 1960년대 세계 건축계에 나타난 새로운 주제 가운데 하나는 “달라진 ‘인간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다. 근대건축을 지배했던 집단주의에 대한 신념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거의 완전히 사라졌으며, 반대로 개인주의가 활성화되었고, 건축가들은 사회에 개인의 요구를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당시 서양 건축계에서는 ‘인간’, 특히 ‘인간 개개인’에 대한 논의들이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많이 등장했다.

이와 같은 경향들은 50년대 말부터 새롭게 등장해 활발하게 활동했던 유럽의 아방가르드 건축가들이 주도했으며, 그들의 실험적 작품들의 대표적인 주제는 개인적 신념과 목적으로 무장한 ‘있는 그대로의 벌거벗은 인간’¹⁰⁾으로서의 ‘개인(individual)’이었다. 이들 아방가르드 건축가들은 인간 개인에 대해 이전의 근대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해결책을 추구하고였다.

같은 맥락에서 아키그램 그룹 역시 인간 개인에 대한 고려를 자신들의 건축 안에 개념화하려고 노력했다. 1962년 4월에 발행된 잡지 아키그램 2에서 제기되었던 10 가지 의문점 중의 하나를 보면, 아키그램 세대가 당시의 근대건축에 대해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획의 이상(理想), 행정이론, 광고주의 판매정책, 전문기술인의 컴퓨터, 혹은 건축가의 자아가 개인들을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패턴 속에 가둬놓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지는 않는가?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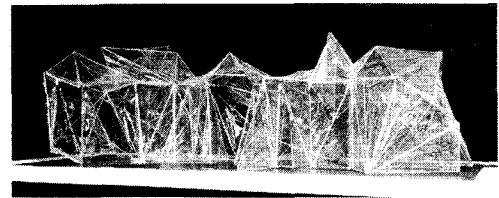
아키그램의 많은 작업들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

앞으로 보게 될 3.1은 아키그램의 인간 개인에 대한 고려를 뒷받침하는 개념의 이론적 고찰에 관한 부분이며, 3.2는 그들의 개념이 실제적인 건축 작품을 통해 어

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3.3은 도시적 차원에서 개인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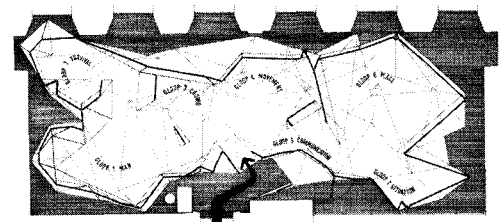
3.1. 실존주의적 여행 : 리빙 시티 전시회

1963년 6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영국 런던의 현대예술 협회(ICA,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에서 개최되었던 아키그램의 첫 번째 전시회인 리빙 시티(Living City)는 영국 아방가르드 건축가들에 의한 실존주의 사상의 인상적인 수용(收容)을 보여주었다.



<그림 1> 리빙 시티 전시회장의 모형, 1963

리빙 시티를 통해 아키그램은 도시에서 가능한 일종의 실존적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존주의 사상의 영향이 없었다면 아마 아키그램의 도시 아이디어는 리빙 시티처럼 완전한 실존주의적 경향을 지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림 2> 리빙 시티 전시회장의 평면, 1963

리빙 시티의 첫 번째 글롭(gloop)¹²⁾인 ‘인간(Man)’에서, 피터 쿡은 “도시의 이미지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개개의 이미지일 수 있으며, 우리는 전시회의 많은 부분을 도시인들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추려고 노력했다”¹³⁾라고 주장했다. ‘인간’ 글롭에서 출발한 관람객은 개인으로서의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타인들과 사물의 분명하게 이질적인 세계 사이의 관계를 인식한다.

10) Sigfried Giedion, Architecture : You and M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1958, p.127. 기디온은 ‘벌거벗은 있는 그대로의 인간(bare and naked man)’이라는 자신의 원시주의적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장 폴 사르트르를 인용한다.

11) Timothy Tinker, Ten questions in search of an answer, Archigram, n° 2, 1962. 4, n.p.

12) ‘글롭(Gloop)’이라는 용어는 리빙 시티 전시회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리빙 시티 전시회에는 모두 7 가지의 ‘글롭’(Man, Survival, Crowd, Communication, Movement, Place, Situation)이 설치되는데, 아키그램은 이 글롭을 통해서 자신들의 도시에 대한 생각을 소개한다. Peter Cook, Extracts from Living Arts magazine n° 2, June 1963, in Peter Cook, Archigram, 앞의 책, p.20.

13) Peter Cook, Introduction, in Theo Crosby, John Bodley, Living Arts, n° 2,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and Tillotsons, London, 1963, p.71.



<그림 3> '인간' 글루에 설치된 플라쥬, 1963

도시 생활을 일종의 모험으로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생존(Survival)' 글루는 도시인들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들로 구성되었다. '자아(self)'가 한 개인에 의해 도시의 여러 장소에서 행해진 연기(連記)의 모음이라는 생존 글루의 개념은 실존주의를 연상시키고 있다. 여기서 도시는 도시인 개개인의 개인적 삶을 다룬 영화의 단순한 배경일 뿐이며,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연기자과 무대 장치를 갖춘 '살아 있는 도시(living city)'는 가장 이상적인 영화세트라 할 수 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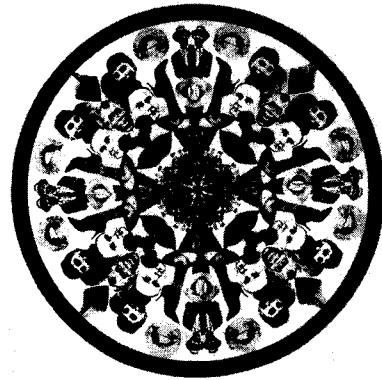


<그림 4> 워렌 쇼크에 의해 제작된 리빙 시티의 생존 키트(Survival Kit)

하지만, 실존주의에 의해 고무되었던 도시민 개개인의 '개성(individuality)'이라는 주제는 세 번째 글루인 '군중(Crowd)' 글루에 이르러 중요한 실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근대의 대도시들이 개인들을 모두 집어 삼킬 것이라고 믿었던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로부터 에베네제 하워드(Ebenezer Howard)에 이르는 많은 비평가들이 도시 거주자들의 운명으로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리빙 시티 전시회에서 아키그

14) Simon Sadler, Archigram : 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ure,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2005, p.66.

램은 군중을 오히려 개성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로써 생각하였다. 아키그램의 리빙 시티에서는 거대한 만화경(萬華鏡)이 모든 종류의 인간상의 집합과 그들이 리빙 시티의 공유된 경험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법을 상징하고 있었으며¹⁵⁾, 결국 아키그램에게 있어 집단이라는 것은 도시에 대한 각자의 개인적 사고와 경험에 의해 집단주의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진 개인들의 집합체였다.



<그림 5> '군중' 글루에 설치된 만화경 플라쥬, 1963

마지막 일곱 번째 글루인 '상황(Situation)'은 도시 환경 속에서 개인들의 인식과 위치와 관련되어 있었다. '상황'이라는 용어는 원래 실존주의로부터 유래한 단어였으며, 이를 통해 아키그램이 주장한 것은 결국 상황이라는 것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매순간 결정해야만 하는 복잡한 삶의 조건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림 6> 기 드보(Guy Debord)와 애스저 요른(Asger Jorn)의 파리의 심리-지리학적 안내(1957)를 보여주는 설치물, 1963

아키그램 건축가들이 기술의 불가피성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실존주의 사

15) Crowd, in Theo Crosby, John Bodley, Living Arts, 앞의 책. p.105.

상에 기초한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이상을 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건축가들이 개인적 선택의 가능성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키그램은 당시의 사회를 활기에 넘치고, 창조적이며, 경제적으로 변화가 심한 사회, 비인간적인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투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회로서 판단했고, 따라서 그 사회 안에서 개인들은 이전에는 자신들을 위해 권력이 대신 결정해 주었던 문제들을 이제부터는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¹⁶⁾ 따라서 아키그램의 리빙 시티 역시 관람객들에게 각자의 선택에 확신을 갖도록 독려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환경을 결정하는 일을 건축가의 손에만 맡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¹⁷⁾

이와 같은 아키그램의 관점은 건축가를 개인들의 행동 방식을 독려하거나 방해하는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삶이라는 무대의 전지전능한 무대감독으로 생각했던 아키그램 이전 건축가들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이전 세대와는 다른 아키그램의 관점은 모더니즘의 실패의 원인을 도시 거주자 개개인의 복잡한 삶으로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몰이해(沒理解)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했던 당시의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었으며, 따라서 아키그램에게 도시는 더 이상 건축가에 의해서만 완전하게 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건축가와 주민 개개인 사이의 협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리빙 시티 전시회는 건축가나 도시 계획가에 의해 정해진 합리적 목적에 대한 기만적 요구에 대해 개인을 가치로 주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키그램은 강요된 환경질서에 존재하는 규율적인 권위적 체계의 가치 일체를 부정한 것이며, 그들의 주장은 그러한 어떠한 질서도 환경계 안에서의 자연 발생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키그램의 작업은 건축가에 의한 환경 형성력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에 '개인의 참여'라든가 '포함(involverment)'과 같은 능동적이고 민주적인 힘을 고양시키고자 의도하였던 것이다.¹⁸⁾

물론, '선택'이라는 주제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60년대에 등장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다. 이미 스미드슨 부부(Alison and Peter Smithson)는 1950년대부터

선택이 자신들의 주택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였음을 인정하고 있었고, 그들이 제시한 '연합의 패턴(patterns of association)'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에 대해 이미 상당 부분 고려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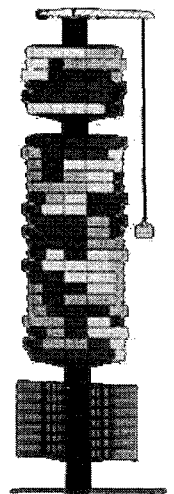
기계의 도움을 많이 받는 사회에서 우리는 주택 집합의 형태를 각 개인들이 [이웃과의] 접촉의 정도와 보호의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만족감의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¹⁹⁾

하지만, 스미드슨 부부의 선택에 대한 생각은 당시의 압도적인 근대문화에 직면해서 '선택'이라는 해결책이 사회적 위기의 순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소극적인 인식이었다. 반면에, 아키그램 그룹에게 있어서 선택의 가능성은 이제 막 도래한 새로운 시대의 신호였다. 과거의 원칙을 넘어서는 선택에 대한 아키그램의 이와 같은 주장은 주류 모더니즘과 비교해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3.2. 자율환경(Auto-environment) 개념

하지만, 리빙 시티 전시회 이후, 아키그램의 작업은 리빙 시티만큼 추상적이거나 도시 생활에 대한 철학적 고려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아키그램이 거대 구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룹에게 지금과 같은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줬던 플러그-인 시티(Plug-in City), 워킹 시티(Walking City), 컴퓨터 시티(Computer City), 언더워터 시티(Underwater City) 등 구조적으로 극단적인 대담함을 보이는 이미지들이 작업에 등장했다.

그 대신 아키그램은 거대 구조 속에서 도시민들의 생활을 가둬놓고 있는 엄격하게 고정된 벽으로부터 도시 생활의 유연적 상황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임시적인 요소, 예를 들면, 교체 가능한 쓰고 버릴 수 있는 캡슐(capsule)과 같은 개별 단위들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키그램은 가능한 한 건물요소들의 견고함과 항구성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했으며,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1964년 워렌 초크에 의해 제안된 캡슐 타워(Capsule Tower)는 완성된 산업적 생산품으로서의 주거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기보다는 개개인의 미래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개인 단위들로 구성된 자율적 구조체였다.



<그림 7> 워렌 초크의 캡슐 타워,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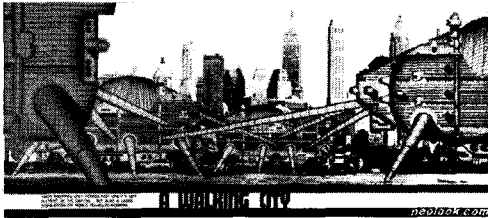
16) Ian Jeffrey, *La culte de la créativité : les jeunes architectes*, in David Alan Mellor, Laurent Gervereau, *The Sixties : Britain and France, 1962-1973*, Philip Wilson Publishers, Ltd, London, 1997, p.127.

17) Peter Cook, *Control and Choice*, in Peter Cook, *Archigram*, 알의 책, p.124.

18) Philip Drew, *Third Generation : The Changing Meaning of Architecture*, Pall Mall Press, London, 1972, p.102.

19) Alison Smithson, Peter Smithson, *Without Rhetoric : An Architectural Aesthetic, 1955-1974*,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1974, p.14.

다시 말해, 리빙 시티 직후 아키그램의 작업은 거대 구조에 대한 흥미로 요약될 수 있지만, 동시에 론 헤론의 워킹 시티는 '움직이는 주택'이라는 측면에서, 초크의 캡슐 주거는 '모든 서비스가 내부에 탑재된 개인적 공간 단위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거대 구조로부터 도시적 규모의 기반 시설이 필요 없는 움직이는 개별 구조로의 변화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 론 헤론의 「뉴욕의 워킹시티」,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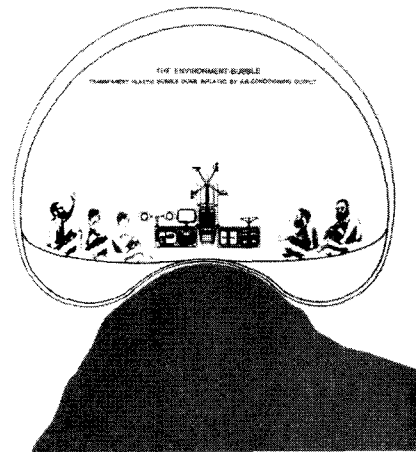
이처럼 자신들의 거대 구조물 속에 이미 암시해 놓았던 것처럼, 아키그램의 관심은 1964년 11월에 발행된 아키그램 5 이후 60년대 중반에는 거대 기반시설의 네트워크로부터 개별 단위들에 의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이동해 갔다. 개인이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아키그램의 건축과 도시에서도 고정된 물리적 구조와 네트워크가 사라지고 움직이는 개별 구조를 위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등장한 것이다. 데이비드 그린은 자신들의 이와 같은 작업을 '건축의 점진적인 비물질화(非物質化)'²⁰⁾와 '개별 구조'를 향한 경향으로 정의하였다.²¹⁾

60년대 중반 거대 구조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서 아키그램은 건축을 지면으로부터 분리하고 그 영구성을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관심을 개별적이면서 교체 가능하고 휴대가 가능한, 심지어는 쓰고 버릴 수도 있는 구성 단위라는 개념에 집중시켰다. 아키그램의 작업에서 서비스의 순환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대신 구조 그 자체의 순환이 중요해졌다.²²⁾

60년대 중반에는 아키그램 이외에도 레이너 밴햄(Reyner Banham)²³⁾을 비롯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많은 아방가르드 건축가들 역시 일반적인 건축물을 넘어서 비물질적이고, 투명한 공기역학 구조물을 통해 근대 건축의 여러 주제들을 극단적인 수준까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다. 예를 들면, 밴햄은 자신의 논문 「집은 집이 아니다(A Home Is Not a House)」(1965)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시하고 있었다 :

당신의 주택이 배관, 도관, 덕트, 배선, 조명, 배출구, 오븐, 싱크대, 음식 찌꺼기 처리장치, 오디오, 안테나, 선풍기, 온열기 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복합체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리고 만약 이 장치가 당신의 집으로부터 어떤 도움 없이도 스스로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면, 왜 굳이 집을 소유해야만 합니까?²⁴⁾



<그림 9> 밴햄과 프랑수와 달그래의 Envirobubble, 1965

1965년 11월에 발행된 아키그램 6 역시 밴햄과 마찬가지로의 주장을 했다 :

내부에 셀 수 없을 만큼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갖춘 완벽한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이 필요합니까?²⁵⁾

결국, 아키그램은 건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휴대 가능한 환경을 이용해서 거대 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키그램은 '자율환경(Auto-environment)'이라는 개념에 기초해서 개개인이 완벽한 개인적 환경을 휴대하는 작품들을 구상하였다.

'자율환경' 개념은 1965년 마이클 웹이 계획한 자동으로 건설되고, 서비스되며, 해체되는 동명의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계획안에서 반투명하거나 투명한 플라스틱 패널들은 모든 기후조건, 사회적 변화 그리고 입주자의 개인적 요구에 대응해서 펼쳐지거나 재형성될 수 있다.²⁶⁾

20) Vicky Richardson, Future, past and present, Blueprint, n° 218, 2004. 4, p.54.

21) "인간은 건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도 자신의 활동을 구조화할 수 있다. 휴대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 활동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는 시간과 공간의 확고한 체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David Greene, Michael Barnard, Film Script, in 「Archigram 1970-1971」, Architectural Design, 1971. 8, p.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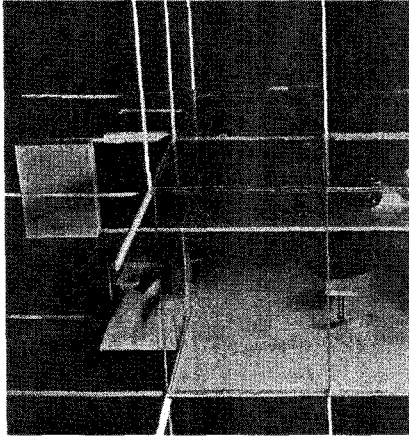
22) Dominique Rouillard, Territoire magique, in Claude Prelorenzo, Infrastructures : villes et territoires, Montréal, l'Harmattan, Paris, 2000, p.25.

23) 1965년에 밴햄은 프랑수와 달그래와 함께 '환경거품', 다시 말해 외부의 공기조절 시스템에 의해 부풀릴 수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거품 형태의 돔을 구상한다. Reyner Banham, 「A Home is Not a house」, Art in America, 1965. 4 참조.

24) Reyner Banham, A Home is Not a house, 앞의 책, pp.109-118.

25) Phenomenon for now, Archigram, n° 6, London, 1965. 11, n.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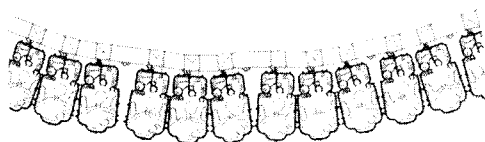
26) Peter Cook, Archigram Group, London : A Chronological Survey,



<그림 10> 마이클 웰의 완전 자동화된 주거 모형, 1964-1965

이 '자율환경' 개념은 개스킷 하우스(Gasket House, 1865), 리빙 포드(Living Pod, 1966), 쿠쉬클(Cushicle, 1966), 수탈룬(Suitaloon, 1968) 같은 아키텍트의 60년대 중반 이후의 일련의 계획안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들 계획안에서 기본단위는 더 이상 전체를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니었고,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특히, 리빙 포드를 포함한 쿠쉬클, 수탈룬 등의 계획안은 개인의 요구에 따라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독립된 하나의 단위로서 존재했으며, 외부 세계에 대해 완벽한 자율성을 지녔다는 측면에서 아키텍트가 추구했던 '자율환경'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주거 단위들을 분리시켜 건축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던 아키텍트의 60년대 중반 이후의 방향설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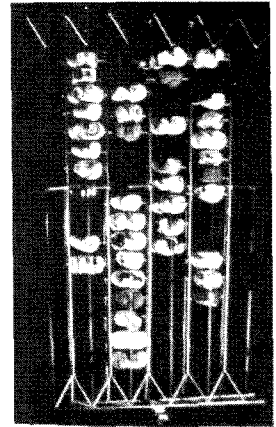
쇼크의 캡슐 타워 이후, 캡슐 개념에 의해 자극받아 헤론과 쇼크가 설계한 개스킷 하우스는 관리의 측면이나 타워 배치에 의한 제약이 없다는 측면에서 캡슐 타워에 비해 보다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때부터 아키텍트는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고도로 개인화된 주거 모델에 집중하였다.



<그림 11> 론 헤론과 워렌 쇼크의 개스킷 하우스 평면,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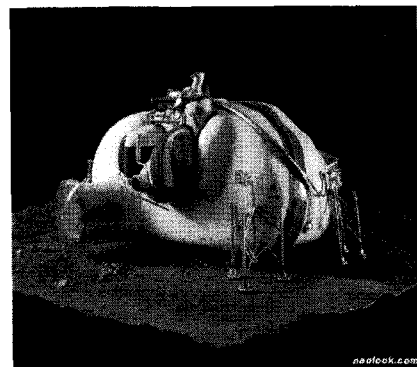
개스킷 하우스가 발표된 일 년 후에, 완벽한 독립의 가능성이 그린이가 계획한 이동 가능하고, 독립적이며, 모든 구조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리빙 포드 계획안에 의해 제시되었다. 리빙 포드는 이론적으로는 워킹 시티

처럼 스스로의 다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자율적이지는 않았다. 리빙 포드에 대한 설명에서, 그린은 리빙 포드를 엄연한 하나의 '집'이라고 확인함으로써 주거를 하나의 이동 가능한 기계장치로 축소시켰지만, 동시에 리빙 포드를 플러그-인 시티와 같은 거대 구조물 안에 쌓아올릴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상기시켰다.²⁷⁾



<그림 12> 데이비드 그린의 리빙 포드 타워 모형, 1966

이렇게 봤을 때, 캡슐 타워나 개스킷 하우스 등 리빙 포드 이전의 단순한 기계적 조합에 의한 계획안들이 여전히 집중화된 구조를 갖고 있었다면, 리빙 포드 이후의 쿠쉬클이나 수탈룬 같은 개인들의 요구에 반응해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단위 주거는 지구상 어느 곳이나 임의적으로 개별 단위를 퍼뜨릴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분산구조를 추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리빙 포드는 이들 사이의 중간 정도 단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중간 단계 거주캡슐로서의 리빙 포드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단순히 잘 발달된 하이브리드의 단계를 과감하게 뛰어넘었다.



<그림 13> 그린의 리빙 포드 모형, 1966

거대 규모의 서비스 구조체가 포기되고, 시간과 공간에 있어 덜 영구적인 구조가 만들어 지면서, 건축의 임시성, 분산 그리고 이동성 등이 쉽게 이동 가능한 캡슐을 통해 아키텍트의 인간 개인에 대한 건축적 고려에서 중요한 한 단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린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제 2 기계시대의 영향으로 인해, 인간의 심리학적 필수 구성 요소로서의 집(정적이고 영구적인 주거)에 대한 필요성은 사라질 것처럼 보인다. 선대의 위대한 건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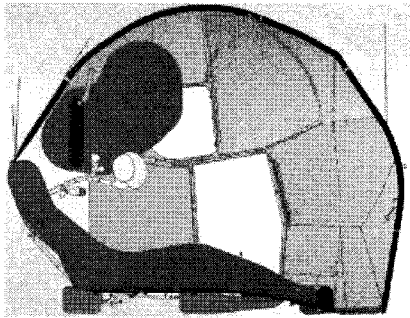
Architectural Design, 1965. 11, p.573.

27) David Greene, Living Pod, Archigram, n° 7, London, 1966. 12, n.p.

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집은 이제 당신과 함께 이동 가능한 장치이며, 도시는 그것을 쫓아 넣기 위한 기계일 뿐이다.²⁸⁾

주거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 변화에 따라, 특히 웹과 그린은 60년대 중반 이후, 사용자, 즉 거주자들의 개별적 생활들을 강화할 수 있는 건축을 창조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캡슐 타워나 가스킷 하우스의 단위 주거였던 캡슐은 타워의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모든 생활 장치들이 내재되어 있는 움직이는 독립적 공간 단위로 발전하였다.

웹의 쿠쉬클은 한 개인이 자신의 등에 필요한 완전한 환경을 직접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부풀려 사용할 수 있는 장치였다. 즉, 이것은 완벽하게 설비²⁹⁾가 갖추어진 완전히 자율적인 유목적 개인 단위였다. 한 마디로, 인간의 심리적 요구에 최대한 반응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건축이다.



<그림 14> 마이클 웹의 쿠쉬클, 1966-1967

웹은 쿠쉬클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켜 우주복 개념에 기초한 주택으로서의 옷인 수탈론을 구상하였다. 웹에게 옷은 개인용 외피였고, 집은 그 외피들의 집합체였다. 옷과 집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차이점은 크기뿐이었다. 수탈론은 비영구적이고 가볍고, 편안한 집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옷에서 주거용 외피로 변화 가능한 구조를 하고 있다.³⁰⁾ 수탈론에서 외부 골격과 액체 상태의 옷, 공기로 부풀릴 수 있는 방, 플러그 인 개념은 겉으로는 하나의 단순한 옷이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내부 공간을 갖는 하나의 개인용 집을 구성한다.³¹⁾ 다시 말해, 웹은 수탈론을 '살기 위한 개인용 옷'으로서 구상하였다.



<그림 15> 밀란 트리엔날레(Milan Triennale)를 위해 그린이가 제작한 수탈론 모형, 1968

3.3. 모멘트 빌리지(Moment Village) 개념

거대 구조에서 개별적 단위로의 변화를 거치면서 아키그램은 60년대 중반의 작품들에서 건축과 도시를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닌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 사이의 일시적인 '관계(relationship)'로 정의했다.

다시 말해, 아키그램은 건축적 단계에서만 '개인'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독립적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일시적인 도시의 개념과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도시 네트워크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도로의 교차점에 시장을 위치시켜 개인들 사이의 교류와 관계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브로드에이커 시티(Broadacre City)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다.³²⁾ 라이트의 도시에서 도로변에 위치한 자율적인 시장의 개념은 개인들 사이에서 우연적이고 자율적인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키그램이 구상한 도시에서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 '관계'³³⁾라는 것은 라이트처럼 시장이라는 실제적인 매개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개념적인 단계까지 발전되었다. 즉,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단위가 어디서든 우연히 모이게 되면 성립되었다가 그것이 흩어지게 되면 없어지는 비실체적인 특징을 갖는 것이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 지는 이러한 관계들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함으로써, 아키그램은 발달된 산업문명 속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³⁴⁾

28) David Greene, Living Pod, Archigram, n° 7, London, 1966년 12월, n.p., David Greene, Living Pod, in Centre Georges Pompidou, Archigram, Editions du Centre Pompidou, Paris, 1994, p.114.

29) 쿠쉬클에는 음식물과 물, 라디오, 미니 텔레비전, 냉난방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헬멧에 장치되어 있고, 비상식량과 물은 외부 주머니에 들어 있다. Michael Webb, Archigram, n° 7, London, 1966, 12, n.p.

30) Véronique Willemin, Maisons Mobiles, Éd. Alternatives, Paris, 2004, p.52.

31) Charles Jencks, Architecture 2000 and Beyond : Success in the Art of Prediction, Wiley-Academy, London, 2000, p.103.

32) 브로드에이커 시티의 이상적인 '살아 있는 도시'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군중 속에서 위엄 있게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라이트의 생각을 모두 모아놓은 일종의 종합관으로서 1930년대에 이미 한 번 발행되었다. 그 이후, 1958년에 「The Living City」라는 이름의 책 속에서 재 발행된다. 비록 아키그램 건축가들이 이 책을 읽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리빙 시티 전시회와 라이트 책의 명칭 사이의 유사성, 책의 출판 시기와 전시회의 시기 그리고 아키그램이 전시회에서 제안한 도시이론 등을 종합했을 때, 그 관련성을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33) 아키그램은 이 관계를 '교환'으로서 나타내기도 했는데, 그들에게 교환이란 두 사건 사이의 상호작용, 두 유기체 사이의 상호작용과 유사했다. in 「Archigram group and their work」, Architecture d'Aujourd'hui, n° 139, 1968, p.61.

34) Marie-Jeanne Dummont, Shebam! Pow! Blop! Wizz! : retrospective

이와 같은 개념은 워렌 초크의 캡슐 타워 계획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초크의 주거 캡슐 개념은 어떻게 하면 하나의 주거 그룹이 주민 개개인에 의해 모이거나 해체되어질 수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결과물이었다. 캡슐 개념에서 전체 타워는 일부 캡슐의 일시적인 집합체였으며, 전체 형태는 개인의 요구에 따른 캡슐들의 부분적 교체에 의해 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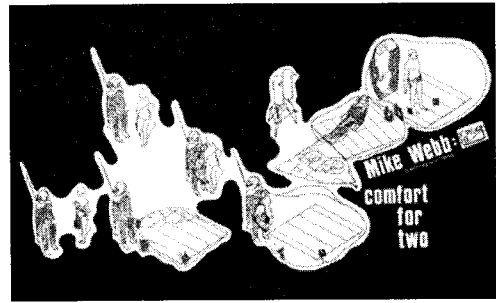
<그림 16> 아키그램 8호 표지에 실린 모멘트 빌리지 평면, 1968

이 개념을 도시적 단계에서 구체화시킨 1968년의 모멘트 빌리지(Moment-Village) 계획안에서 아키그램은 한 자동차 안의 개인이 다른 자동차 안의 개인에게 보내는 링크나 가벼운 인사를 비롯한 단순한 동작들이 사회 속에서 공동의 행위를 구성하고,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점에서부터 실제 마을이 생성된다는 가정을 하였다.

마이클 웹 역시 수탈론을 입고 있는 두 명의 개인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흥미로운 교류를 한 장의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웹은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강제적인 건축적 커뮤니티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공간들을 소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른 개인들과 연합하여 자유롭게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웹의 그림에서 각각의 수탈론은 주택의 현관 자물쇠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플러그를 갖고 있으며, 수탈론 소유자는 이 플러그를 이용해 이웃한 다른 수탈론에 접속할 수 있고, 결국 두 사람은 하나의 수탈론 속에 함께 머무를 수 있게 된다. 플러그는 또한 두 개 이상의 수탈론을 연결시켜 더 큰 공간을 만드는 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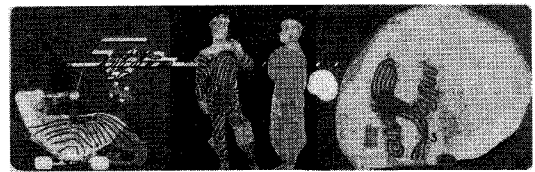
Archigram à Beaubourg, Architecture d'Aujourd'hui, n° 293, 1994 6, p.12.

35) Simon Conolly, Pneu World. Architectural Design, 1968. 6, p.272.



<그림 17> 두 수탈론이 합쳐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마이클 웹의 그림, 1967

웹의 또 다른 그림에서는 두 명의 수탈론 소유자인 데이브(Dave)와 팻(Pat)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 서로의 무릎을 맞대고, 곧 이어 하나의 커다란 공간 안에 함께 머물게 된다. 데이브의 옷은 보다 큰 주택공간을 형성하는 외피의 일부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수탈론의 소유주는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과의 연결의 정도 역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림 18> 마이클 웹의 수탈론 기능도, 1968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키그램 그룹의 건축은 급진적인 방식을 통해서 근대의 집단주의와 보편성에 반발하면서 '개인'의 개념을 건축 개념화하는데 공헌하였다. 하지만, 아키그램이 '사용자를 위한 건축'과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건축을 위해서 고도의 과학기술을 사용했음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키그램의 이와 같은 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에게 많은 명성과 함께 기회를 가져다 준 거대구조물에 의해 많은 부분 왜곡된 채 이해되어졌고, 결국 일반적으로 아키그램은 단순히 기술 지향주의 건축으로만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키그램의 인간 개인에 대한 개념의 이론적 고찰과 그들의 작품 안에서 개인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고찰하여 그들의 건축에서 개인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규명하려 했다.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아키그램 그룹은 실존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리빙 시티 전시회를 시작으로 개인적 단위공간에 의한 자율환경 개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도시 개념인 모멘트 빌리지 등을 통해 인간 개인에 대한 고려를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리빙 시티 전시회를 통해 아키그램은 대도시 안에서

인간 개인의 존재에 대해, 개인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정의내리고자 했으며, 이런 측면에서 리빙 시티는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전환되던 당시의 지속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리빙시티 이후의 아키그램 작업들이 리빙 시티만큼 추상적이고 비물질적인 사건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개인의 고려'라는 측면에서 그 초안은 이미 리빙 시티에서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아키그램이 개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건축을 본격적으로 구상하였던 것은 실제로는 리빙 시티 전시회 이후 몇 년이 지난 뒤부터였는데, 아키그램은 리빙 시티의 다음 단계로써 거대 구조로부터 독립적인 단위 주거를 해방시킨 60년대 중반 이후의 일련의 작업들을 통하여 인간의 자율성의 문제를 활성화시켰다. 이동 가능하고, 휴대 가능하며, 완전한 설비가 내부에 갖추어진 개인적 건축의 의미를 극대화 시켰던 리빙 포드, 쿠쉬클, 수탈론 등의 작업들을 통해 아키그램은 전체 도시적 맥락보다는 한 개인에게만 속하는 건축을 지향하였고, 이것은 리빙 시티 전시회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현대 대도시에서 개인의 반항이라는 주제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아키그램이 개인에게만 속하는 개별적 건축을 통해 거대 구조 네트워크로부터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의 변화를 만들어 냈지만, 이것이 도시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이와 같은 자율적인 개인 공간은 보다 확장된 도시 체계의 필요 불가결한 일부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개인적 공간들이 전체에 연결되지 않으면, 이 기본 단위들은 거주자에게 완전하게 맡겨지는 독립적인 주거로서 역할을 하게 되지만, 동시에 이 주거 단위들은 전체 사회에 포함될 수도 있고, 몇 개의 단위들이 임의적으로 모여 하나의 사회를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키그램이 추구한 개인의 개념에서는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하였고, 인간 개개인의 선택에 있어 최대한의 자유와 수단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측면에서 실존주의와 개인주의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아키그램은 사회의 형성을 개인들의 완전한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이지, 사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아키그램의 도시에서는 개인적인 단위들이 모여 새로운 공생을 이루고 그것이 인간 개개인의 존재의미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세상을 완성시키는 것이었다.

아키그램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인간과 건축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관계는 기술적으로 발달된 환경 속에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변증법적 변화를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주체가 바로 인간 개개인이

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아키그램 그룹, Archigram, n° 1 - n° 9 1/2, London, 1961-1974
2. 저자불명, Archigram 1970-1971, Architectural Design, 1971. 8
3. 저자불명, Archigram group and their work, Architecture d'Aujourd'hui, n° 139, 1968
4. Alison Smithson, Peter Smithson, Without Rhetoric : An Architectural Aesthetic, 1955-1974,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1974
5. Andrew Higgott, Mediating Modernism, Routledge, London, 2007
6. Centre Georges Pompidou, Archigram, Editions du Centre Pompidou, Paris, 1994
7. Charles Jencks, Architecture 2000 and Beyond : Success in the Art of Prediction, Wiley-Academy, London, 2000
8. Claude Prelorenzo, Infrastructures : villes et territoires, Montréal, l'Harmattan, Paris, 2000
9. David Alan Mellor, Laurent Gervereau, The Sixties : Britain and France, 1962-1973, Philip Wilson Publishers, Ltd, London, 1997
10. David Greene, Michael Barnard, Film Script, in 「Archigram 1970-1971」, Architectural Design, 1971. 8
11. David Riesman, Nathan Glazer, Reuel Denney, The Lonely Crowd : A Study of the Changing American Character,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50
12. Jane Jacobs,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Vintage, New York, 1961
13. Marie-Jeanne Dummont, 「Shebam! Pow! Blop! Wizz! : retrospective Archigram à Beaubourg」, Architecture d'Aujourd'hui, n° 293, 1994. 6
14. Peter Cook, Archigram, Studio Vista, London, 1972
15. Peter Cook, Archigram Group, London : A Chronological Survey, Architectural Design, 1965. 11
16. Philip Drew, Third Generation : The Changing Meaning of Architecture, Pall Mall Press, London, 1972
17. Reyner Banham, A Home is Not a house, Art in America, 1965. 4
18. Sigfried Giedion, Architecture : You and M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1958
19. Simon Conolly, Pneu World, Architectural Design, 1968. 6
20. Simon Sadler, Archigram: 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ure,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2005
21. Stefano Casciani, Archigram has landed, Domus, n° 865, 2003. 12
22. Theo Crosby, John Bodley, Living Arts, n° 2,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and Tillotsons, London, 1963
23. Véronique Willemin, Maisons Mobiles, Éd. Alternatives, Paris, 2004
24. Vicky Richardson, Future, past and present, Blueprint, n°218, 2004. 4
25.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111180>
26. <http://100.naver.com/100.nhn?docid=102840>

[논문접수 : 2009. 10. 31]

[1차 심사 : 2009. 11. 20]

[2차 심사 : 2010. 01. 05]

[게재확정 : 2010. 02. 05]